



한 경기 빼끗하면... K리그1 선두 쟁탈전

전북·서울·울산 1위자리 놓고 '박빙의 승점전쟁' 폐시치 '9골'·김신욱 '8골'... 득점경쟁도 '활활'

한 경기만 빼끗하면 순위가 뒤바뀌는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살얼음판' 선두 경쟁이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6~7일 하나원큐 K리그1 2019 19라운드 가 펼쳐지는 가운데 전북 현대·FC서울(이상 승점 38)·울산 현대(승점 37)가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과 서울은 승점이 같지만 득점에서 전북(34골)이 서울(30골)을 4골차로 앞서 선두를 지키고 있다. 지난 3월 30일부터 선두 자리를 맞본 팀 역시 전북, 서울, 울산

뿐이다. 더불어 5월 11일부터 1~3위 자리도 이들 세 팀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형국이다.

서울은 최근 9경기 무패(6승 3무)로 가장 신바람을 탄 가운데 전북과 울산은 나란히 7경기 무패(5승 2무)를 내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치열한 '무패 싸움'에서 이탈하는 팀은 선두 경쟁에서 밀리게 될 수밖에 없어 매 경기가 살얼음판이다.

19라운드를 맞아 전북, 서울, 울산은 모두 홈경기를 치른다. 19라운드 대전만 따지면 울산이 유리한 형국이다.

울산은 6일 오후 7시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는 '꼴찌' 인천 유나이티드와 만난다.

선두 전북은 7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까다로운' 성남FC와 상대한다. 전북은 5월 4일 8위 성남과 시즌 첫 맞대결에서 성남의 '선수비 후역습' 전술에 고전하면서 0-0으로 비겼다.

이런 가운데 성남은 최근 제주 유나이티드와 상주 상무를 잇달아 꺾고 2연승으로 상승세다. 성남은 전북까지 꺾으면 시즌 첫 3연승을 달성하게 돼 선수들의 동기부여 요소도 적지 않다.

서울은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5위 강원FC와 대결한다. 강원은 지

난달 23일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5-4 대역전극을 펼친 인천까지 몰리치고 2연승을 따내며 5위까지 올랐다.

15~16라운드에서 '난적' 수원 삼성, 대구FC와 연속 무승부를 거둔 강원은 최근 2연승을 포함해 4경기 연속 무패로 상승세여서 선두 탈환에 도전하는 서울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편 K리그가 증반으로 접어들면서 '토종'과 '외인' 골잡이의 득점왕 경쟁도 한껏 불붙었다. 서울의 폐시치(세르비아)가 9골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장신 스트라이커' 김신욱(전북)이 8골로 뒤를 잇고 있다. 이어 수원의 타카트(호주)와 상주의 박용지(7골)가 추격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유도 남녕고 김세현 전경기 '한판승'

전국유도대회 -100kg급 금 32강부터 결승까지 5경기



김세현

남녕고 김세현이 제90회 YMCA 전국 유도대회에서 32강부터 결승까지 모든 경기 한판승 행진을 벌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세현은 지난달 27-29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고부 -100kg 결승전에서 권오찬(김천중앙고)을 맞아 허벅다리후리기 한판승으로 1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대한유도회와 서울YMCA가 주최하고, 경북유도회와 김천시유도회가 주관해 진행됐다. 김세현은 1회전에서 문동준(정석고)을 상대로 허리채기 한판승을 거

둔 뒤 2회전에서는 김민혁(비봉고)을 허리후리기 절반 누리기 한판승으로 제압했다. 이어 3회전에서는 김민배(김천중앙고)에게 되치기 절반 안다리 한판승을 따낸 뒤 4회전에서는 정준혁(금호공)을 안다리 한판승으로 눌러 승승장구했다.

유도 경기에서 한판승은 흔하지만 32강부터 결승까지 모든 경기를 한판승으로 이어가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히 이전 대회 2위에 머물렀던 2학년 김세현은 3학년 선수들을 상대로 완벽한 첫 금메달을 일궈내 더욱 화제를 낳고 있다.

제주도유도회 관계자는 "결승전을 비롯해 상대 선수 대부분이 3학년인데도 2학년이 전 경기 한판승을 거둔 것은 드문 일"이라며 "같은 체급의 선수들보다 신체조건이 워낙 뛰어나 유도대회에서도 눈여겨보는 선수"라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탁구 장우진·임종훈 코리아오픈 복식 8강

이상수·정영식 조도 진출

장우진(미래에셋대우)·임종훈(KGC인삼공사) 듀오가 '신한금융 2019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 목표를 향해 기분 좋게 출발했다.

작년 코리아오픈 우승 콤비인 장우진·임종훈 조는 4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복식 16강전에서 푸에르토리코의 브리안 아파나도르·다니엘 곤살레스 조를 3-0(11-7 11-8 11-7)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장우진·임종훈 조는 8강에서 스웨덴의 안톤 칼베리·크리스티안 칼손 조와 준결승 진출을 다룬다.

이상수·정영식 조도 싱가포르 조에 3-0 완승을 하고 8강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안재현(삼성생명)·조대성(대광고) 조는 일본의 하리모토·니와 조에 2-3으로 져 복식 16강에서 탈락했다.

여자복식에서는 전지희(포스코에너지)·이시은(삼성생명) 조와 양하은(포스코에너지)·최효주(삼성생명) 조가 나란히 본선 1회전(16강) 판문을 통과해 8강에 안착했다.

혼합복식에 나선 임종훈·유은총(미래에셋대우) 조는 16강에서 이상수·전지희 조를 3-2로 물리쳐 8강에서 중국의 쉬신·류스웬 조와 4강행 티켓을 놓고 맞붙는다.

연합뉴스

서울 최용수 감독 "우리팀, '공공의 적' 된 듯"

최근 '판정 특혜 논란'에 "선수 부상... 우리도 피해자"

"우리가 '요즘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은데,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프로축구 FC서울의 최용수 감독이 최근 서울을 둘러싼 '판정 특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 감독은 4일 경기도 구리시 GS 챔피언스 파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최근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불쾌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은 지난달 30일 울산 현대와의 리그 18라운드 경기에서 2-2로 비겼다.

논란이 된 판정은 후반 33분께 나왔다.

페널티 지역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서울 수비수 김원식은 울산 김태환의 크로스를 왼손으로 쳐냈지만,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다. 울산 선수들은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비디오판독(VAR)을 거쳐으나 판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최용수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일 심판평가위를 통해 해당 판정이 오심이었다고 판명했다.

최 감독은 "판정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최근 벤치에서 판정에 대해 지나친 불신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울산전에서 피해가 컸다"며 "오스마르는 코뼈가 부러졌고, 폐시치는 상대 선수에게 발을 밟혀 발가락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최 감독은 "경기 후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판정과 상대방을 좀 더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6~7일·14일 제주도지사배 전도축구대회

사라봉·삼양·회천구장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회장 김정오)는 7월 6-7일, 14일 3일간 제주시 사라봉구장과 삼양구장, 회천구장에서 제9회 제주도지사배 전도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9회째를 맞은 도지사배 전도 축구대회는 조기축구회와 여성축구

회 등이 참여하는 순수 아마추어 성격의 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여성부 4팀과 혼성부 10팀, 40대부 5팀, 50대부 10팀, 60대부 8팀, 70대부 3팀을 포함해 총 40팀이 참가해 평소 갖고 있던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별도의 개막식 행사는 진행되지 않으며, 6일 오전 9시 사라봉구장과 회천구장에서 개막전

이 진행된다.

제주도축구협회 관계자는 "이 대회를 통해 도내 각계각층의 축구 동호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축구 인구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스포츠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동호인들은 대회 기간 온 가족과 함께 즐기면서 소통의 장을 만들고, 동호회원 간에 끈끈한 정도 나누면서 기쁨과 감동의 시간을 즐길 것"이라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으랏차차!"... 전국씨름선수권 대회 4일 강원 인제군 북면 원동 체육관에서 개막한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고 있다. 선수와 임원 등 1300여명이 참가한 이 대회는 오는 11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 일반여행업 등록 제1016호 ★

Return to Paradise

제주 ↔ 베트남 왕복직항 전세기

하노이/장안/하롱베이 5일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juhongik.co.kr

예약계좌: 제주은행 21-13-003418 예금주: 제주홍익여행사

8월 15일

100% 할인

899,000원

한정좌석~선착순!
서두르십시오!

여행일정 Hot Place ★★★★★

세계자연유산 하롱베이 (선상유람), 닌빈(짱안) 유랑답사, 종유석동굴 티툼성, 수상인형극, 전신마사지 1회

특식 3회 : 파라다이스 뷔페, 씨푸드, 무제한 삼겹살

포함내역 왕복항공권, 4성급 2인 1실, 전 일정 식사, 차량료, 입장료, 해외여행 보험

불포함내역 가이드/기사 팁 \$50, 부가세, 개인 경비, 매너 팁